

5) 순천공립중학교

전남지역의 인문계 공립중등학교는 실업계 학교보다 설립이 늦었다. 1921년 목포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고, 1923년에는 일본인을 위한 학교로 광주중학교와 광주고등여학교가, 1925년에는 사립광주고등보통학교(1919년 설립)가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27년에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1930년대에 순천지역에 실업계 중등학교로는 순천공립농업학교가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인문계 중등학교는 설치되지 않았다. 매산학교에 고등과가 있었지만 그나마 1937년 신사참배 거부문제로 폐교당했던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중학교는 김종익의 육영정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다. 그의 유지에 의한 회사금으로 1938년 3월 순천공립고등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동년 4월 교육령 개정에 따라 순천공립중학교(5년제)로 개칭되어 1938년 4월 30일 개교하였다.

일제시대에는 5년 과정을 갑중학교라 했고, 3년 과정을 을중학교라 했다. 을중학교는 실업계가 많았다. 학년당 2학년 포함 10학급의 규모였으며, 당시 내선일체를 표방하기 위해 만든 학교이기에 일본인 학생이 40여 명 공학하였다. 개교 첫해는 2학년 110명 모집에 700여 명이 응시하여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1938년 4월 1일 동래공립중학교 교사 광겸홍의(廣兼弘毅)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개교 첫해는 가교사로 순천향교를, 이듬해는 향교와 순광사(소화유치원, 국도극장 부근)를 사용하였으며, 1939년 11월 인제동의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전남지역의 중등학교의 학년별 모집정원은 대체로 50~100명 정도여서 당시 중학생의 희소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학기는 1년을 3학기로 운영하였으며 유급제가 엄격하여 공부가 부실하면 여지없이 낙제를 시켰다.

교과목은 수신(윤리)·공민(일반사회)·국어·한문(조선어·한문습자·작문·문법)·영어·역사(일본역사·동양사·서양사)·지리·수학(산수·대수·기하·삼각법)·이과(일반이과·응용이과·박물·물리·화학)·실업(농업)·도화·음악·체조(체육·교련·무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어와 조선어의 주당 시간수는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일본어는 5년 동안에 주당 시수가 평균 6시간이었고, 조선어는 평균 14시간이었다. 그리고 체조과목에 교련과 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교련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지만 집단훈련·행군·사열연습시간을 합치면 훨씬 초과하였다. 교과서는 모두 일어로 되어 있고 교수용어도 일어였으므로 수업시간은 물론 친구와의 대화나 장난도 일어로 해야 할 정도였다.

일제는 전쟁 말기에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 현역장교를 배속하여 교련교과로 군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였고, 일본식 검도를 가르쳐 상무로서 미·영격과정신을 강화하였다.

순천공립중학교가 개교되던 해인 1938년과 1943년에 제3·4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학교교육체제는 전시교육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다.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황국신민선서의 암송강요, 우리말 사용금지, 창시개명의 강행, 신사참배, 궁성요배와 정오묵도 등이 강행되었다. 또한 조회 때 열병·분열은 물론 등교시 교문에서 벚꽃나무 계단까지의 80m 거리를 보조로라 하여 전교생을 일본군대식 행보로 걷게 하였다. 아울러 전교생의 검도실시·체육대회 기마전·장대 눕히기·대대까지의 단축마라톤·체력검정 등 일제의 군사교육에 따른 많은 행사가 이루어졌다.

일제 말기는 전시교육체제라 학생들은 학교수업 외에 근로봉사에 참여해야 했으며 모심기·벼베기·하천제방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수 신월리와 광주비행장 공사에 근로동원을 해

야 했다. 1945년 3월에는 수업연한을 5년제에서 4년제로 단축하였다.